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 분석

이 영 숙*(군산대학교 생활과학부 교수)

박 경 란 (인제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가족·소비자학과 교수)

한 사회의 성원들이 노인을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연령집단별 인지각의 본질적 측면을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과 중년이 갖고 있는 전형적인 노인의 특성 및 특성의 범주를 분류하여 노인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을 확인하고, 양 연령집단간에 어떤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는지를 규명해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전북과 경남 소재 고등학생과 중년층을 대상으로 두 가지 조사가 실시되었다. 즉 노인의 전형적인 특성을 산출하는 개방형 질문의 제 1조사와, 이 조사결과를 토대로 노인의 특성을 분류하는 제 2조사이다. 제 2조사에서의 결과를 위계적 군집분석으로 분석한 결과, 청소년과 중년이 갖고 있는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은 다음과 같음을 발견하였다.

첫째, 양 집단이 보여주는 고정관념의 유사점은 청소년, 중년 모두 노인집단에 대하여 긍정적 고정관념보다 부정적 고정관념을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청소년과 중년이 가진 차이점을 살펴보면, ① 청소년은 부정적 고정관념을 6개 범주('목표가 없는', '비관적인', '은둔적인', '건강이 손상된', '생활감각이 부족한', '자기중심적인')로 분류하였고, 중년은 7개 범주('생활감각이 부족한', '목표가 없는', '은둔적인', '비관적인', '자기중심적인', '관심을 원하는', '건강이 손상된')로 분류하여 중년의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이 더 복잡하였다. ② 청소년과 중년이 서술한 부가적인 단어 선택을 살펴보면, 중년은 주로 긍정적인 단어를 서술하였던 반면, 청소년은 부정적인 단어를 서술하여 청소년과 중년이 노인을 다르게 지각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이 서술한 부정적인 단어 중에는 노인의 신체적인 특성에 관한 것이 많아 청소년은 중년과 달리 노인을 외면적 특성에 비추어 판단하고 지각하는 경향이 높았다. ③ 노인의 특성을 표현하는 몇몇 단어에 대하여 청소년과 중년은 서로 상반된 의미를 부여하였다. 예를 들어, '삶에 애착이 많은' 단어에 대하여 중년은 긍정적인 특성으로 지각하는 반면, 청소년은 부정적인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와는 달리, '잠이 적은'과 '회생적인' 단어에 대하여 청소년은 긍정적으로 보는 반면, 중년은 부정적인 것으로 지각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는 우리 사회의 청소년·중년 공히 노인에 대해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많이 갖는 경향이냐, 각 연령집단의 발달과정, 다양한 역할 및 이에 따른 경험들로 인해 "노인" 지각에 대한 세대간의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준다.